

# 국내 첫 마애열반상 발견

## 경주시 울동 뒷산서...고려시대 조성 추정 동국대박물관 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온전한 형태의 마애열반상이 경주에서 발견됐다. 동국대 경주박물관 박홍국 연구원과 경주 계림고 최민희 교사는 4일 경주시 울동 뒷산 '사당굴 사지' 지점에서 몸길이 1.8m 불두길이 42cm 얼굴폭 25cm 크기의 마애열반상을 발견했다. 이 마애열반상은 가로 3.56m 세로 4.5m 크기의 '가자형' 암벽의 오른쪽 벽면에 새겨져 있으며 왼쪽 암벽 하부에는 30자 가량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얼굴과 왼쪽 손, 발은 비교적 뚜렷하며 나머지 부분은 현재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불두의 눈이 가는 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오른쪽 어깨를 아래로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전형적인 열반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처님의 입멸을 묘사한 열반상은 인도나 중국, 일본에서도 드물게 발견되고 있는 불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화나 원각사지 10층 석탑(조성 세조)의 탑신에 소규모 부조가 있으나 독립상으로 조성된 마애열반상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창호 경주대박물관장(문화재학과)은 "4행으로 된 명문에 '무술년 2월3일'로 표기된 부분이 나오고 이두문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원래 명문은 81년에 발견됐으나 이 유적으로부터 6m 떨어진 곳에 있는 또 하나의 선각 마애불두상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져 왔었다. 그러다 두 유적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먼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박홍국 연구원 팀이 탐사 끝에 토사에 묻혀 가려져 있던 마애열반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박홍국 연구원은 "이 열반상은 마애불상으로는 공백으로 남아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어서 불교조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 지역이 사당굴사지로 불리워지는 절터인만큼 주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8일 문화재관리국에 울동 마애열반상 발견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현장보존 조치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정옥녀씨의 지도로 국악교성곡 '혜초'를 연습하고 있는 불교계 연합합창단.

### 창작국악교성곡 '혜초' 연습 현장

## "혜초스님이 되자" 250여명 한마음

'왕오-천축-구옥 전-'  
"첫 부분이 '왕오'를 당겨 힘차게 울려야 합니다. 이 첫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해 봅시다."  
8일 오후 2시, 강남 직강동민 진선여교 내 회당기념관에는 한겨울 추위도 아랑곳 않은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불교계 연합합창단 2백50여명이 소프라노와 알토로 나뉘어 국악교성곡 '혜초' 연습에 한창이다.

"길 떠나네- 길 떠나네- 이 부분은요, 씩씩하고 희망차게 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미지의 나라로 구법의 길 떠나는 혜초스님을 상상하며 해 보세요." 소프라노파트의 연습을 이끌고 있는 정옥녀씨(청룡사·묘각사 합창단 지휘자)의 자상한 지도에 합창단원들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화음만들기에 열중한다.

27일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열리는 국악교성곡 '혜초'의 공연일은 앞으로 19일. 연습기간이 짧기 때문에 무대에 서야하는 합창단들은 더욱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진각 길상사 청룡사 묘각사 인천보명사 중앙불교 수원포교당 조계사청년회 등 연합합창단 2백50여명은 2월의 문화인물 기념음악회가 원만히 성료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연습을 마치 실천처럼 임하고 있다.

"단원들에게 우리가 혜초스님이 된 기분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천3백년전에 낫살고 들선 그 머니만 곳으로 구법의 길을 떠난 혜초스님이 되어보자는 것이지요. 다른 음악회보다 몇 배 긴장이 됩니다." 길상사 이정법장 단장은 합창단들의 각오를 살짜 들려준다.

앨토파트에 참가하는 흥정법화 청룡사 합창단 흥무는 "혜초스님을 기리는 문화행사에 동참하게 되니 너무 기쁘고 보람이 큼니다"면서 노래를 부르는 마음이 바로 기도하는 마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5년동안 성악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돌아온 바리톤 박성규씨는 '혜초' 작곡자 김희경씨의 권유로 합창 앨토파트의 연습을 지도하고 있다. 귀국하자마자 큰 불교음악회에 동참하게 되어 불자로서 보람이 크다는 박씨는 "외국에서 힘들게 공부하다보니 그 옛날 인도로 구법여행을 떠난 혜초스님의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것 같다"며 좋은 화음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피아노반주의 김동욱 강유정 이정은 유문섭 씨들도 합창단원들과 한마음으로 27일 공연날을 위해 피치를 울리고 있다.

혜초스님을 기리는 창작 국악교성곡 '혜초'는 작사자 장지현정사와 작곡자 김희경씨, 250여 합창단원들, 노래를 지도해 주는 지휘자 정옥녀, 박성규씨 그리고 반주자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멋지게 성료되길 불교계 최고의 공연중 하나로 기록될 것에 틀림없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 경주시 '제1회 불교엑스포' 열린다

### 4월1일 전야제...52일간 행사 영산대제등 전통불교문화 총망라

지난해 세계문화엑스포가 열렸던 경주에서 '제1회 불교 엑스포-한국불교문화예술대전'이 개최된다. 4월1일 전야제 연등과레이드를 시작으로 부처님오신날 다음날인 5월 23일까지 52일간 계속되는 불교엑스포는 영산대제 등 개막, 탑돌이 대동제 등 막을 내리게 된다. 지난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참여한 13개 전시 공연 기획자들의 모임인 한국전람사업협의회(회장 이일호)가 주관하고 한국불교총연합회(회장 고산스님)가 후원하는 '한국불교문화예술대전'은 경주 보문단지 내 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한국불교문화전, 불교건축대전, 실�크로드의 불교문화 영상, 불교음악제, 사찰을 식 강연회, 불교의상패션쇼 등 행사가 펼쳐진다.

전 등을, 영상관에서는 세계의 불교성지, 실�크로드의 불교문화, 불교영화, 스님의 하루 등의 영상상영으로 비디오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참가를 유도한다. 공연장에서는 불교문화의 몸짓, 불교음악제, 김영동의 음악세계로, KBS 열린음악회, 동국대 불교관 현악단 공연, 젊은이들의 한마당, 동심으로의 초대, 문화예술공연, 오페라 환호, 어머니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선보인다.

이외에도 불전사물, 조석예불, 사시마지 등을 음향효과로 재현한 IMF 극복과 제2건국 기원을 위한 기원제'가 중앙광장에서 봉행되고 학술행사에서는 '한국 불교의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한국불교의 발전방향' '불교문명과 불교' '한국사회와 불교' 등 3개 주제를 놓고 토론 한마당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특별행사로 티벳의 달라이라마 직속 공연단 초청공연도 가지며 관광객들이 직접 현장체험할 수 있는 참선과 다도의 광도 마련될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 세상이 아름답고 찬란한 이유

### 홍기삼교수 산문집 '들뜰도 고향이 있다'

〈불교문화 연구〉 〈불교문화이란 무엇인가〉 등 불교문화이론의 권위자 홍기삼교수(동국대 국문학)가 주옥같은 에세이를 모은 산문집 《들뜰도 고향이 있다》를 펴냈다. 샘터 펴.



이번 산문집에는 칼날같은 감수성으로 쓴 서정성질은 41편의 에세이가 담겨있다. 따뜻한 눈으로 사물을 보는 생명주의자 홍교수가 현대인에게 띄우는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것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찬란하다는 것. 1부 모여사는 아름다움에는 유소년기 청년기의 아름다운 추억을 통해 비틀거리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반조하고 2부 걸음걸이와 인격은 잔잔하고 향수 어린 글을 통해 오늘의 세대에 따르던 일침을 놓는다. 3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는 공동체적 삶과 역사외식에 대한 통찰과 비판, 4부 누더기 장삼의 가르침은 불교문화 진단을 통해 불교계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

산문집 《들뜰도...》는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현 문화세태를 잔잔하면서도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경숙 기자

## 광양 옥룡사지 명문기와 출토

광양 옥룡사지에 대한 3차 발굴조사 결과 요사체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옥룡사' 명문이 새겨진 암각새와 햇무리급 청자 등이 출토됐다. 이번 발굴에서 출토된 명문기와는 그 동안 일부 문헌과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옥룡사가 실재했음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초반까지도 사세가 유지되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좋은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 '화주응진(化主應眞)...만력십칠년기축삼월일(萬曆十七年己丑三月日)' 명 기와를 통해 1589년 경에 옥룡사에 대규모의 불사가 있었음을, '송치(松峙) 명 기와에서는 기와제작 장소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응정오년정미(雍正五年(1727년) 丁未)...일옥룡사(日玉龍寺)...도감담(都監潭)' 명 암각새 등 5종의 명문기와와 연화문암각새, 용문양 암각새, 압형기와, 치미, '관(官)' 자명 인화문분청사기편, 비루편, 상령분보 등 유물이 다수 출토됐다.

## 홍국사 나한전등 향토유적 지정

고양시 지족동 한미산 홍국사 나한전 등 7개의 문화재가 고양시 향토유적으로 7일 지정

## 문화재소식

됐다. 홍국사 나한전은 1878년 건축된 건물로, 정면 3개의 문에 있는 문살의 무늬가 세밀하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홍국사 나한전 외에 새로 지정된 향토유적은 강매동 창룡전에 있는 돌다리, 박대성 정려비와 묘, 은지와 이축 선생 묘, 심희조 교지와 묘, 권희 선생 묘, 이석탄 장대비 등이다.

## 동학사 입구 민속박물관 세운다

계룡산 동학사 입구에 민속박물관이 들어선다. 충남도는 2일 공주 동학사 입구 온천개발 집단시설지구 3만3천여평에 대한 계룡산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요청.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도는 이곳에 민자 2백10억원을 유치해 2002년까지 '계룡산 민속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민속박물관은 1만3천평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지며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주민들의 의식주 관련 유물 3천5백여점이 전시된다.

이곳은 10여년 전 온천개발 집단시설 2지구로 지정,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민간사업자의

부도로 산정관리 용허가 깎아놓은 채 중단돼 주민과 관광객들의 비난을 사왔었다.

## 지자체별 문화재 정비계획

문화사 석탑 발굴, 백룡사 대웅전 보수를 골자로 한 경주시를 비롯한 공주시, 경상남도 등의 올해 문화재 정비 계획이 발표됐다. 경주시는 올해 1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백룡사 대웅전·원원사지 보수 정비와 문화사 석탑 발굴, 황룡사지 전사관 건립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경주 남산 발굴 및 복원 5개년 계획의 2년차 사업에는 14억2천여만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4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공주시는 마곡사 대웅보전과 영안암 적묵당 보수비로 4억여원을 배정했다. 신원사 옥의소화전 설치, 상신리 구룡사지 정비, 감사 칠당간지주 보수 및 경내정비 등도 4억원을 들일 계획이다. 또 무령왕릉 모형관, 석성리 구석기유적 전시관도 건립한다. 경상남도는 고성 옥룡사 보장각 전시시설 1

억원, 통도사 서운암 15만 도자(陶磁) 대장경 제작에 2억원 등 도내 문화재 1백25건에 대해 2백7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사업을 벌인다. 김수호왕릉, 진주성, 통영 세방관 등에는 55억5천만원을 들여 정비 및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충주시는 올해 17억7천6백여만원을 들여 김생사지 학술조사, 중앙탑 주변 정비공사, 정토사 법당대사비 보호각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도비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남원시는 실상사 정비, 덕음암 석불좌상 보수와 함께 사찰 서원 향교 등 향토문화재에 대한 정비 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구리시에 '고구려박물관' 건립

지난해 고구려 유물이 한꺼번에 발굴돼 관심을 모았던 구리시 아차산 보루성 인근에 고구려 박물관이 건립된다. 구리시는 2일 아차산 1천여평 터에 건립 3백여평 규모의 고구려박물관을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물관에는 고구려 군사요새였던 보루성에서 발굴된 토기·무기류 등 관련 유물 1천여점과 구리문화원에서 전시하고 있는 유물 50여점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 일타 크스님의

# 불자의 기본 예절

###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

바른 수행의 밑거름이 되는 불교집안의 예절.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목욕·입욕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 I. 불자의 마음가짐과 언행
- II. 합장법과 예배법
- III. 사찰에서의 예절
- IV. 법문 듣는 법
- V. 절집안의 생활예절

4×6 판 / 3,300원

## 신간

## 일타크스님의

#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알려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 생활속의 기도법

###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6 판 / 3,300원

## 일타 크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전하는 크스님의 법어집.
- 기도(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크스님 주변의 기도성취 체험담 모음집.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강》에 대한 강설집.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풀 해설집.
- 범망경보살계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크스님의 보살계 법문.
-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 감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일타크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